

# 2월 반달 뉴스 (1호)



# 한 주 사이 381t 이상의 불법 벌채된 목재가 미얀마 전역에서 압수된다



이미지 제공: shutterstock

- 양곤(YANGON), 9월 30일 (신화사) – 산림부가 수요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주 미얀마 당국이 전국에서 381.8톤 이상의 불법 목재를 압수했다.
- 본 압수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미얀마의 지방, 주 그리고 네피도 연합 영토 당국(Nay Pyi Taw Union Territory)에 의해 이루어졌다.
- 산림부의 수치에 따르면, 압수된 불법 벌채된 목재에는 107.1t 이상의 티크, 46.7t의 견목 그리고 228t 이상의 기타 목재가 포함된다.

본 압수 사건과 관련하여 총 62명의 범죄자가 기소되었으며, 현재 목재 밀수는 대개 바고(Bago) 지방의 4개 구역, 특히 바고(Bago)와 타웅우(Taungoo) 구역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연자원 및 환경 보전 부처 산하 산림부는 나무 조림 프로젝트를 대용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의 불법 벌채 및 교역을 엄중히 단속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U Ohn Win장관은 수요일 생물 다양성에 관한 유엔 정상 회의 성명에서 5억 달러의 자본을 사용하여 산림 복원 및 재건 10년 프로젝트를 미얀마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산림 보존과 생태계 재건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진 점을 강조했다.

# 불법 벌채를 엄중히 단속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다



이미지 제공: shutterstock

2020년 11월 23일자, Eduardo Año내무 장관은 지방 정부 부서와 필리핀 국가 경찰청(PNP)에 불법 벌채와 불법 채석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시행하고 식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필리핀 국가 경찰청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 벌채꾼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duardo Año 내무 장관은 기상 교란인 "율리시스(Ulysses)", "롤리(Rolly)", 그리고 "킨타(Quinta)"로 인해 루손섬(Luzon)의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 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들은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불법 벌채와 채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Eduardo Año 내무 장관은 카가얀 계곡(Cagayan Valley), 비콜 지방(Bicol regions), 마리키나시(Marikina City), 리살(Rizal)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발생한 홍수가 모든 사람이 숲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숲이 재생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부(LGU)에 지역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대책 본부를 재활성화하고, ‘불법 벌채 방지 캠페인과 지역 내 환경 관련 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결단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duardo Año내무 장관은 몇몇 시장의 관여로 불법 벌채가 번창한다는 보도를 확인했으나, 모든 시장이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벌채를 알고 있는 시장도 있을 수 있으나,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추정했다.

“몇몇 사람은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알고 있다. 아마도 벌채꾼이 시장의 선거 캠페인에 기여하거나 시장 출마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부적절한 제안이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상원 의원들은 최근 태풍이 휩쓸고 간 지역을 돋기 위해 내년 재난 기금을 50억PHP로 늘리겠다는 하원 의장 Allan Velasco경의 제안을 환영했다. Vicente Sotto III상원 의장은 상원이 감사위원회에 의해 지출이 신고된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관의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Franklin Drilon상원 소수당 당수는 내년 기금으로 할당된 200억PHP의 재난 기금이 태풍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돋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1년 재난 기금으로 제안된 예산은 올해 160억PHP에서 늘어나 200억 PHP이다. 지난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율리시스(Ulysses) 피해액이 130억PHP, 롤리(Rolly)가 180억PHP, 퀸타(Quinta)는 42억PHP이다. 이 세 번의 태풍만으로도 피해액이 340억PHP인데, 내년 재난 기금은 200억PHP에 불과하다. 이것은 완전히 부족한 액수다.”라고 Drilon상원 소수당 당수가 말했다.

Sen. Panfilo Lacson 상원 의원은 200억PHP의 재난 기금을 태풍으로 심하게 피해를 본 지방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acson 상원 의원은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부서’가 다목적 건물 건설을 위해 책정해 둔 680억 PHP에서 추가 재난 기금으로 200억PHP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소중한 나무들이 자카르파탸(Zakarpattia)주에서 불법으로 벌채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불법 활동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다.

-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자카르파탸(Zakarpattia)지역 내 모크랸스키(Mokryansky)와 벨리코베레즈냔스키(Velykobereznyansky) 국유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산림 자원 도난을 폭로하고 이를 막았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언론 부서가 이 사실을 보도했다.
- 우크라이나 보안국 조사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모크랸스키(Mokryansky) 산림 공무원들이 국영 기업 소유의 땅에서 소중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환경 전문가에 따르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는 자카르파탸(Zakarpattia)주 환경 기금에 16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줬다. 국장 대리를 포함해서 국유림 공무원 3명이 범죄 혐의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

"벨리코베레츠냔스키(Velykobereznyansky) 산림에서 국영 기업의 직원들이 거의 18,000 USD를 받고 국유림을 민간 기구에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위탁 받은 산림 기금의 영토에서 불법 벌채를 조장했다."라고 보안국은 언급한다.

불법 활동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두 가지 사실 모두 자카르파탸(Zakarpattia)지방 검찰청의 절차적 지침 하에 주 수사국 리비우(Lviv) 부서의 수사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밝혀졌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자카르파탸(Zakarpattia)주에서 519,000 USD의 대규모 산림 절도를 폭로했다.